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2월 제 126-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도심에 몰리는 ‘노숙인’ 의료 지원 필요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책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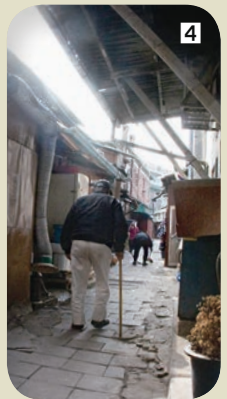
1



2



3



4



5

1 영등포역 쪽방촌 노숙인 텐트 2 영등포역 쪽방촌 재개발 후의 조감도 3 영등포 쪽방촌 지역에서 종교 자선단체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에게 라면 등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다. 4 쪽방촌 골목 풍경 5 요셉의원에서 내려다 본 쪽방촌 모습

도심 재개발 하면 흔히 가난한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가 떠오른다. 재개발로

도시 환경이나 미관은 개선되는 반면, 사회 밑바닥 빈민층은 몸 붙일 곳을 찾아 이리저리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도심 재개발로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지를 없애고 멋지고 깔끔한 건물들이 들어서면 ‘눈엍가시’ 같은 노숙인들

이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외국 주요 도시의 사례를 봐도 이들의 후생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도심 노숙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재개발로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부족한 값싼 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즉, 노숙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자원이 확충

126-1호
주요
소식



1

노숙인 의료지원 필요



5

재단 & 병원 소식



8

쪽방촌 향기



14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7

국성회 소식





노숙인들에게는 먹고 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자체에서 이들의 숙식 지원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래사진은 본원 의무기록실에 비치된 환자 진료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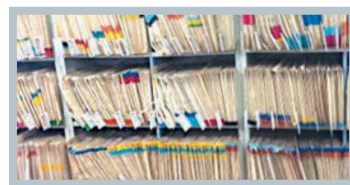
되지 않는다면 노숙인이 저절로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노숙인 감소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재개발에 밀려나는 ‘노숙인’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이 거론되는 곳 중에는 한 때 사창가였다가 성매매여성이 줄어들며 쪽방촌이 된 곳이 적지 않다.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역 부근도 그런 곳이다. 노숙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서울역 부근의 동자동이나 양동, 종로나 용산 등에도 유사한 쪽방촌이 들어서 있다.

본원은 신림동에서 개원한 지 10년 뒤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노숙인들이 많은 영등포역 부근으로 이전해 왔다. 현재 위치한 곳도 3년 전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쪽방촌 거주자 현황 확인 외에 특별한 진척 상황은 눈에 띄지 않는다.

2년 여 가량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료 상황도 바뀌었다. 코로나 이전 이곳 쪽방촌 주민 수



는 한 때 560명 정도로 집계됐으나, 현재는 점점 줄어 370명 선으로 내려갔다. 환자 수도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에는 통상 하루 100명 내외를 진료했으나, 2019년부터 하루 60~70명 선으로 내려갔다가 코로나를 겪은 뒤 현재는 하루 55명 내외를 진료하고 있다.

본원 박상욱 총무부장은 “진료 환자가 줄어드는 데는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난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푼다’는 본원의 설립 이념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쪽방촌 세입자,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줄어들 가능성”

이곳 쪽방촌 주민들은 재개발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입주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건물주는 당연히 소정의 보상금을 받으면 되지만, 세입자들은 새로 들어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것인지, 다



영등포역 부근 재개발 대상 쪽방촌 지역. 2020년 1월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거주민 현황 파악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사진 오른쪽은 본원 봉사자들이 쪽방촌 나눔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 빈민층이 생필품을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들은 무료급식 등을 하는 곳을 찾아 열심히 발품을 판다.

른 곳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금이 이사비를 합해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쪽방촌 주민 정유섭 씨(53)는 “대상자 가운데 처음에 입주 보증금을 내지 않았어도 나중에 입주할 권한이 있다는 증빙과 함께 입주 보증금을 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는 술이나 경마 등을 좋아하는 일부 대상자들이 받은 돈을 야금야금 탕진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가 어려울 수도 있어, 실제 대상자 가운데 몇 퍼센트나 입주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과의 위화감도 일부 쪽방촌 주민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의 하나다.

서울역 부근 의료수요 여전히 높아

앞으로 재개발에 따라 영등포역 쪽방촌이 사라지면 이곳에 있던 노숙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대표적인 곳이 서울역 부근이다. 남기철 교수는 “노숙인은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용직 등 일자리나 삶의 기회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특히 철도 중심지에 전통적으로 노숙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앞 힐튼호텔 뒤 남대문 쪽에는 쪽방촌이 200여 가구 정도, 동자동 쪽에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800가구 정도의 쪽방촌이 형성돼 있다. 무엇보다 교통 등 접근성이 좋고 서울시와 민간 및 종교단체의 각종 자선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큰 이점이다. 한 때 영등포역 부근에서 생활하다 서울역 쪽으로 옮긴 노숙인 고모씨(69)는 “단속을 별로 안 하는 지하철로 쪽에 박스를 깔고 잘 수 있어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며, “몇몇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찾아와 나눠주는 간식도 먹고, 점심 때는 전철을 타고 영등포 무료급식소 쪽으로 와서 밥을 먹거나 물품을 받아간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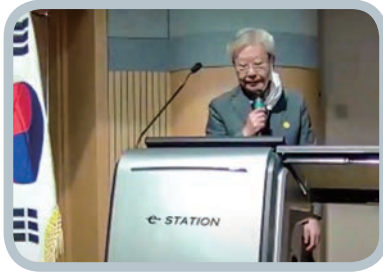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서울역 가톨릭사랑평화의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도시락을 만드는 모습과 배달 봉사를 하는 KLC 성대지부 회원들, 청년의료봉사단체 프리메드의 의료봉사 활동과 아가페 의료봉사단 진료 모습.

말했다.

현재 서울역 부근에는 봉래동2가 서울역전우체국 2,3층에 있는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 의원이 평일 낮에 거리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에는 드림씨티 노숙인센터에서 아가페 의료봉사단이, 토요일 저녁에는 비영리 청년의료봉사 단체인 ‘프리메드’가 지하철 8,9번 통로 쪽에서 진료에 나선다. 드림씨티가 매주 수·토·일요일 한 차례씩 한방진료도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역 부근의 의료지원은 하루 60명 내외로 수요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열악한 편이다.

‘프리메드’ 최지원 대표는 “서울역 프리메드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생활수급비를 받는 급여대상자를 포함해 처음 노숙에 진입한 사람이나 친지 등의 집을 전전하는 사람, 집이 있어도 거의 노숙인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쪽방촌 및 고시원 거주자 등이 주를 이룬다”며, “이들



지난 2020년 10월 꽃동네대학교가 '카리따스 정신의 현장 실현'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본원 신완식 병원장이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진단하는 강의를 했다.

‘노숙인 수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돈의동 주민협, 방문 진료 요청도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및 5호선이 있어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지역도 8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 탑골공원을 끼고 있는 이곳은 대형 상설시장이 가까이 있는데다 종각에서부터 동대문 창신동 지역까지 연계돼 노숙인들의 활동 범위가 비교적 넓다.



영등포 쪽방촌 주민에게 본원 직원이 생필품을 전달하는 모습(사진 위). 아래 사진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목욕 식사나눔 장면.



본원에서는 수년 전 돈의동 쪽방상담소와 협력해 이 지역 치과 환자를 받아 틀니를 장착해 주고 있다. 사진은 본원 치과 진료 모습.

가 비교적 넓다.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에서는 지난 2018년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이곳도 서울의 주요 도심이지만 극빈층에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그만큼 높다. 이 때문에 본원에서는 수년 전 현지 쪽방상담소와 협의해 치과 환자를 받아 틀니 등을 장착해 주고 있기도 하다. 4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이곳 주민협의회에서는 본원에 방문 진료 등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돈의동 쪽방촌 지역은 재개발 소식이 아직은 없으나, 도시 발달에 따라 언젠가는 재개발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쪽방촌 재개발이 노숙인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때 결국은 이들 홈리스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먹고 자는 문제다. 남기철 교수는 “노숙인 숙식 문제는 지차체가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든지 해서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부근에 ‘거리 노숙인’만 진료하는 시립 의원이 한 곳뿐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홈리스 혹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 교수는 “노숙인은 일부 지정의료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약돼 있는 부분을 다양한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 이사회, 2022년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요셉나눔재단법인 제3차 정기 이사회가 2월 1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유경춘 이사장 주교와 홍근표 상임이사 신부, 신완식 이사(요셉의원 원장) 등 이사회 임원 14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진은 2022년도 결산(안) 및 사업보고를 승인하고 ▲요셉나눔재단법인 기념사업회 발족 ▲내규



2월 14일 오후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요셉나눔재단법인 제3차 정기 이사회 모습.

및 지침 개정 ▲고영초 신임 병원장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 재개발 현황 ▲출장진료소 설치 ▲노무평가 컨설팅 추진 ▲필리핀 요셉의원 10주년 행사 ▲선우 경식 선생 전기 출

판 계약 ▲성 요셉 대축일 미사 봉헌 등 여섯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점과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필리핀요셉의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필리핀 요셉의원(원장 김다솔 신부)은 지난 1월 26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현지 깔로칸 교구의 제롬 크루즈 총대리 주교와 본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김다솔 원장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장기 근속자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셉

의원 신완식 병원장을 비롯해 초기 설립 때부터 도움을 주었던 의사, 간호사와 직원 및 현지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봉사자 에블린 박사(소아과)와 급식 담당자 2명이 10년 장기 근속 감사패를, 17명이 근속 감사장을 받았다. <관련 기사 14쪽>

미얀마 미찌나 지역 장애 아동 위한 활동 지원

본 재단에서는 외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 적극 돕고자 했던 선우 경식 초대 원장의 유지를 이어 해외 의료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미얀마의 미찌나 지역 장애 아동

교육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 결과를 최근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공률반외방선교수녀회가 보내왔다.



본 재단이 담낭 제거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 무사히 수술을 마친 '아 뿌리덤' 환자(가운데 휠체어 탄 사람).

보고서에 따르면 '씨앗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0명의 장애 아동들과 일부 성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식품과 영양제를 공급해 도움을 주었고, 한 소아마비 환자에게는 담낭 제거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지원 ▲장학금 지원 ▲아동교육 및 급식 지원 ▲기타 아동 의류와 일용품 등에 전체 지원금의 약 82%

인 906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본 재단에서는 미얀마를 비롯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지의 가난한 빈민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가동 중이며, 해당 위원회에



서는 지원 요청서를 면밀히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봉사자가 미찌나 지역의 장애 아동에게 식료품을 건네고 있다.

선우 선생 전기, 위즈덤하우스와 출판 계약

현재 이충렬 작가가 집필 중인 선우 경식 선생의 전기를 위즈덤하우스(대표 이승현)에서 출판하게 됐다.

본원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이충렬 작가, 위즈덤하우스 류혜정 팀장은 2월 7일 본원에서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맺고,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올해



성탄절 전에 전기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충렬 작가는 ‘간송 전형필’ 전기를 비롯해 이태석 신부, 김수환 추기경, 김대건 신부 전기를 출간한 전기 전문 작가이며, 위즈덤하우스는 직원 130여 명에 연 매출 380억원을 올리고 있는 국내 유수의 대형 출판사 중 한 곳이다.

시무 미사 봉헌, 부서장 임명장 수여



지난 1월 2일 본원 3층 경당에서 봉헌된 시무미사 장면.

2023년도 시무미사가 1월 2일 오후 5시 영등포 본원 경당에서 봉헌됐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가 집전한 이번 미사는 요셉나눔재단법인 발족 후 처음 열린 시무미사로, 요셉의원과 필리핀요셉의원,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담당직원 등 모두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사를 집전한 홍 사무총장 신부는 강론에서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육체와 정신을 포함해 영혼까지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빈다”고 인사하고, “요셉의원과 필리핀요셉의원, 국제성회가 혼연일체가 돼 함

께하는 한 해를 열자”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이어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지역 재개발 문제 등으로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유경춘 이사장 주교님이 신년사에서 당부하셨듯이 공익 법인에 걸맞은 역량을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구 내 사회복지를 다루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공조,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

편, ▲선우 경식 초대원장 기념사업 준비작업에도 힘을 쏟아 선우 선생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시무미사 말미에는 법인사무국과 총무부 및 산하 부서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김용민 정형외과 봉사의, '장기려 의도상' 수상

본원 정형외과 봉사의 김용민 박사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의대 동창회 주최 '2022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19회 '장기려 의도상'을 수상했다. 장기려 의도상은, 청십자



'2022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장기려 의도상'을 수상한 김용민 봉사의(가운데).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 활동과 사회봉사로 널리 알려진 경성의 전 출신 장기려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용민 박사는 충북대의대 교수직을 떠나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로 활약하는 등 국내외 의료 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인술을 펼쳐왔다.

(주)석교상사,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기 후원

골프용품 수입업체인 (주)석교상사(대표 이민기)는 지난 1월 30일 치과용 파노라마 X선 디지털 촬영기(시가 2,500만원 상당)를 후원해 치과 진료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촬영기는 치과 진료 전 환자의 치아 및 치조골과 치아 주위 조직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치과 진료를 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최신 촬영 장비 도입에 따라 본원 치과

는 장비면에서 일반 치과 의원에서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해마다 '사랑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열어 본원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많은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주)석교상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본원에 9,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주)석교상사가 후원해 설치한 치과용 첨단 X선 디지털 촬영기.

사진 오른쪽은 후원금 전달을 위해 방문한 성산동 성당 김지혜 주일학교 교사(가운데)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오른쪽), 신완식 병원장(왼쪽).

성산동 성당 주일학교, 바자회 수익금 기부

서울 성산동 성당 주일학교에서 지난해 성탄절 신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60여 만원을 본원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1월 20일 본원을 방문한 김지혜(프란체스카) 주일학교 교사는 “학부모를 비롯해 신자분들 100여 명이 참여해 내놓은 새 물품을 팔아서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유난히 추운 겨울에 가난한 쪽방촌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성산동 신자분들의 따스한 정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돈 도서관장·윤은숙 환자상담팀장 정년 퇴임



황돈 도서관장

지난해 12월 30일 종무미사 말미에 본원 장기 근속자인 황돈 도서관장과 윤은숙 환자상담팀장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지난 12월 말 현재 요셉 나눔재단 재직자 가운데 최장 근속자인 윤은숙 팀장은 1980년대 초 신림동 달동네 '사랑의 집'에서 보육교사를 하다 1995년 12월 요셉의원에 입사해 당시 선우 경식 초대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행정팀과 의무기록실, 영양팀, 환자관리팀 등을 두루 거쳤다. 요셉의원 역사를 직접 체험한 증인으로서 '요셉의원 30년사' 발간과 선우 경식 기념사업 준비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돈 도서관장은 대기업을 거쳐 개인사업을 하다 2006년 본원에 입사해 3년 여 간 사무장을 역임했다. 이후 에이즈협회 창립에 참여했다 다시 본원 도서관장으로 복귀해 10년 동안 도서관이 영등포 쪽방촌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윤 팀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선우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도 요셉의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 했을 것”이라며, “선우 선생님과 함께 많은 경험과 때로는 힘든 일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매일 성체를 모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빈다”고 감회를 밝혔다. 황 관장은 “그동안 저로 인해 불편했거나 본의 아니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빌며 사랑을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 관장은 앞으로도 봉사자로서 도서관 업무를 계속하게 되며, 윤 팀장은 일단 2월까지 선우 경식 기록화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



윤은숙 환자상담팀장

쪽방촌 향기

“딸들이 ‘16년 의료봉사’ 후원자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1년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빠의 이런 활동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만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면, 가슴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느껴지고, 밤하늘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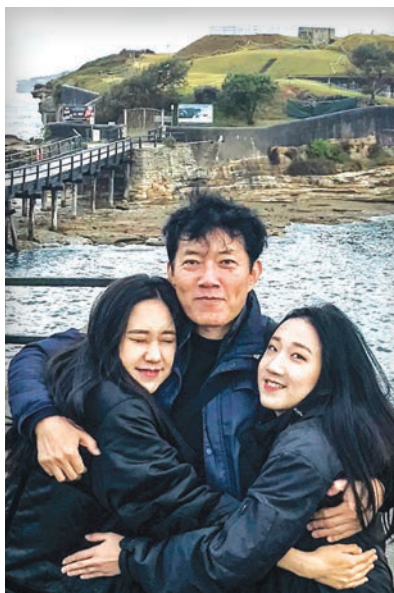
처음 요셉의원을 알게 된 건 양친구 이비인후과 모임에서 자주 뵙는 A 원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원장님은 수년 전부터 요셉의원에서 진료 봉사를 하고 계신다면서, 제게 참여를 권하셨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 진료 봉사하는 시간에 양친구 이비인후과 당번으로 참여한 적은 두 번 있지만, 매달 두 번씩 규칙적으로 다닌다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오래 다닐 자신도 없어서, 몇 번을 사양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양친구의 B 원장님과 진료를 시작하였는데, 일과 끝나자마자 목동에서 버스로 도착해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적으

면 3명, 많으면 8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의료 장비들도 생각보다 훌륭해 청력검사를 못 하는 것 외에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수술이나 정밀검사도 의뢰할 병원이 있기에 비교적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주 맛이 있어 식사 때가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진료 요일을 바꿀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번은 내과 의사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어, 대신 내과 약을 처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반복 처방이긴 했지만, 무의촌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후 몇십 년 만에 복부 촉진과 청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구성모

본원 이비인후과 봉사의
목동 연세이비인후과 원장

같은 건물 요양원의 전담의를 맡게 되어, 노인분들의 치매, 혈압, 당뇨약 처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의 계기가 된 듯합니다.

A, B 원장님들이 2020년 봄에 그만두셔서,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이홍엽 원장님과 단둘이 이비인후과를 맡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으나, 제가 저녁 약속이 많아서, 가끔 이 원장님과 서로 맞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가 매주 2회 정도면 좋겠기에 최소한 이비인후과 의사 두 분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대 동문회와 이비인후과 모임에서 몇 번 참여를 권유했지만, 재활의학과 하는 의대

후배 한 명만 참여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1년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빠의 이런 활동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그만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딸들이 지켜보는 한 계속 ‘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면, 가슴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느껴지고, 밤하늘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4월이 되면 만 16년이 됩니다.

저는 종교가 없고, 사후세계를 별로 믿지 않지만, 혹시라도 하늘나라에서 평가받는다면 가산점은 좀 받겠지요? +



봉사자 코너

의무기록실 김정용 봉사자

“가정 봉사도 착실하게,
요셉의원 봉사도 충실하게 해야지요”



김정용 봉사자(오른쪽)가 의무기록팀장과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본원 저녁 진료 때 의무기록실 봉사를 나 오고 있는 김정용 봉사자(56)는 봉사 경력이 오래된 만큼 관련 직원들과도 허물 없이 지내는 ‘훈남’이다. 또 겸손하기까 지 해서 ‘봉사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면 “봉사한다고 생각 하기보다 스스로를 위해 나온다고 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제가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 5시쯤 도착해 저녁미사에 참석한 뒤,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쉬었다 가 7시부터 의무기록실 접수 봉사를 길어야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나를 뿌듯하고 풍성한 느낌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 저를 위한 일이지요.”

김 봉사자는 저녁 식사 후 쉬는 시간에 먼저 그날 예약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찾아 바구니에 넣고, ‘의사량’이라는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7시에 저녁 진료가 시작되면 순번 대기표 번호에 맞춰 환자들의 이름과 진료 과를 확인해 기록하고, 환자 의무기록지(차트)를 찾아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환자들의 병력을 살펴보고 진단과 투약 처방을 하게 된다. 진료가 끝나면 김 봉사자와 같은 의무기록실 팀원이 간호과에서 가져온 환자 기록지에서 보험 사항을 확인한 뒤 기록지 봉투에 다시 넣고

원래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김 봉사자는 본원에 봉사를 나오게 된 계기를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했다.

“2005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저희 본당에 요셉의원 얘기를 담은 ‘착한 이웃’이라는 잡지를 어떤 분이 홍보하러 오셔서 그때 영등포에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자선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얼마 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주님께 ‘이번 일만 잘 되게 도와주시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마침 그 일이 잘 풀려서 봉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물론 이후에 이일 저일 핑계대고 자주 빠지거나 쉬기도 하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며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못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리한다.

“환자 의무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은 어찌보면 참 단순한 업무지만, 환자 진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보관리 업무라고 생각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려고 합니다. 또 진료 접수도 함께 하므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 첫 대면을 하고 인사하며 응대하는 교감의 장이기 때문에, 밝은 표정과 웃는 낯도 필수고요.”

이런 자세는 본원을 전쟁터의 야전병원과 같다고 보는 시각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김 봉사자는 “병원 밖의 사회에서는 노숙인 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과 그에 따라 소외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이분들을 돕기 위한 후원과 봉사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가운데에 요셉의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본원에 나올 때는 가끔 초대원장인 선우 경식 선생이 생각나기도 한다.

“고 선우 경식 원장님께서 암 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3층 경당에서 봉사자 교육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던 모습, 항상 따스하게 먼저 악수를 청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 그러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돼 야위어 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년 전 퇴직하고 프리랜서 헤드헌팅 일과 문화공간 운영 일을 하고 있는 김 봉사자는 “앞으로 가정 봉사도 열심히 해서 신뢰받는 가장이 되겠다”는 ‘훈남다운 포부’도 밝혔다. +

환자스토리



틀니 장착하고 얼굴 모습 살아난 문재윤 씨

“남을 위해 해줄 것이 없어서 시신 기증 약속했어요”



“그동안 아랫니가 다 빠져서 윗니로만 음식을 먹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장도 나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다행히 요셉의원에서 틀니를 끼우고 난 뒤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초 본원에서 틀니를 장착한 문재윤 씨(61)는 “틀니에 적응하려면 몇 개월 걸리겠지만, 주위에서 더 젊어지고 얼굴도 좋아보인다고 해서 내심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씨는 본원이 신림동에 있을 때부터 가끔씩 찾아와 진료를 받고 약도 타갔다고 했다.

“그때 선우 경식 원장님이 참 친절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하고 냄새 나는 환자들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배려

하시던 모습도 눈에 선하고요. 그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울산 한 양복점의 보조 일꾼으로 들어간 그는 이곳에서 12년 정도 일하며 양장 재단과 재봉 기술을 배웠다. 양복, 점퍼, 바지, 남방셔츠 등 거의 모든 옷을 만들 줄 알게 되자 20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와 종로3가의 큰 양복점 기술자로 들어갔다. 그러다 대기업의 기성복이 시장을 휩쓸게 되자 잠시 삼성물산의 미싱사로 일하다 막노동판에 뛰어들었다.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발을 심하게 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보다 못한 담임선생님이 모금을 해서 다리에 심을 박는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걷기는 좀 나아졌으나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게 됐지요. 30대로 접어들면서는 양복이나 미싱 일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이라 취업도 잘 안되고, 어렵게 들어가도 차별을 받아서 포기했어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액세서리 공장에도 가보고 식당 일도 했다. 불편한 다리로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로 짐도 실어날랐다. 그러나 50대가 가까워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노숙생활로 빠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사기도 당했다.

“어느 날 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서있는데, 누가 돈 좀 벌어보지 않겠느냐며 사업자등록증 내고 인감이 있으면 대출받아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세탁소를 차려볼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여서 대출서류를 만들어 건네줬지요. 그랬더니 제 명의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2억 원이나 대출을 받고서는 잠적해 버렸어요. 이 일로 쇼크를 받아 이가 빠지기 시작했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어요.”

문 씨는 그뒤 용산 다시서기 센터에 들어가 3년 정도 머물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됐다. 현재 서대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 그는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남을 위해 뭔가 해줄 것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 것도 없으니 시신이라도 기증해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담담히 말했다. +



후원의 손길

미국 한인 성당에서 성탄절 모금액 후원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미국 메릴랜드주 올니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박문성 신부가 안부 편지와 함께 지난 성탄절 모금액 5,000여 달러(한화 630여 만원)를 1월 초에 본원 후원금으로 보내왔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미 예수님, 홍근표 신부님께. 성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신부님의 기도 덕분에 큰 탈 없이 이곳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본당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를 통해 요셉재단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 산타가 되어 주세요(한국 요셉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영등포구 쪽향촌에 위치합니다. 이들의 산타가 되어 주실 분은 \$20 도네이션하고, 봉헌자 이름을 적은 오나먼트를 성탄 트리에 장식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올니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본원에 후원한 분들의 이름을 적은 봉헌표를 성탄 트리에 장식한 모습.

청각언어장애 백복순 할머니 사후 610만원 기부

“요셉의원 후원 가장 기뻐하실 것”



청각 언어 장애 독거 노인인 백복순(루시아) 할머니가 지난해 12월 1일 선종하면서 남긴 610만 원을 12월 22일 성남 요한성당 빈첸시오회 김인배(베드로) 전 회장이 백 할머니를 대신해 본원에 기부했다.

선종하면서 본원에 남은 재산 610만 원을 기부한 백복순 할머니(아래)와 청각 언어 장애 딸을 평생 돌보아왔던 백 할머니의 친정어머니(위).

장애인 딸을 돌보아왔던 백 할머니의 친정어머니는 80이 넘는 고령에 몸이 쇠약해지자 딸의 앞날이 늘 걱정이었다. 그러자 당시 할머니가 다니던 요한 성당의 김인배 회장이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키고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 댁을 찾아 두 분의 안부를 살폈다.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김 전 회장은 백복순 할머니를 성당 입구 가까이로 이사시키고 회원들과 함께 30년 가까이 보살피다 3년 전 꽃동네에 입소시켰다.

입소 당시 김 전 회장이 그동안 꿈꿨던 채깅 백 할머니의 전 재산은 7,000만 원.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나중에 백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포함해 노후 보살핌에 쓰도록 꽃동네에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행려자 숙소를 운영하는 성남 안나의 집에, 그리고 1,000만 원은 백

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주도록 한 수도단체에 기부했다.

김 전 회장은 “백 할머니가 꽃동네에 입소하신 지 3년 만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뒤 보니 생활보호대상자라서 매달 수십 만원씩 돈이 나와 모두 800만 원 정도 됐다”며, “이

가운데 병원비 등을 빼고 나머지 610만 원이 남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쓰면 백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평소 존경하던 선우 경식 선생이 떠올라 요셉의원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2년 12월~2023년 1월)



HyKimJungHo Lee Rosa ● 강건영 ● 강남구 ● 강다은 ● 강민정 ● 강민정 ● 강산하 ● 강수진 ● 강창수 ● 강희은 ● 경은비 ● 고정화
● 공승연 ● 객재혁 ● 구은지 ● 구현정 ● 구혜진 ● 권예림 ● 금정현 ● 기선아 ● 김 건 ● 김경숙 ● 김경은 ● 김경진 ● 김기영 ● 김기훈
● 김다현 ● 김다훈 ● 김도현 ● 김동만 ● 김동원 ● 김동현 ● 김동환 ● 김루시아 ● 김명섭 ● 김미숙 ● 김미정 ● 김민희 ● 김범수
● 김범수 신부 ● 김병용 ● 김보람 ● 김상민 ● 김상순 ● 김상희 ● 김선경 ● 김선민 ● 김선영 ● 김성수 ● 김세열 ● 김소민 ● 김소진
● 김수정 ● 김승진 ● 김승현 ● 김신재 ● 김여름 ● 김영애 ● 김예원 ● 김요한 ● 김용식 ● 김우국 ● 김유라 ● 김유란 ● 김유현 ● 김은지
● 김이슬 ● 김 일 ● 김임정 ● 김재현 ● 김정숙 ● 김정호 ● 김정희 ● 김종화 ● 김주아 ● 김준귀 ● 김지나 ● 김지수 ● 김지영 ● 김지영
● 김지일 ● 김지혜 ● 김진실 ● 김진하 ● 김진현 ● 김진호 ● 김채옥 ● 김태순 ● 김학형 ● 김현대 ● 김현희 ● 김형숙 ● 김혜민 ● 김홍희
● 김화순 ● 김황옥 ● 김희정 ● 김희진 ● 김희철 ● 남윤정 ● 남은경 ● 남현아 ● 노미란 ● 노미란 ● 노즈지애 ● 노희강 ● 도용태
● 마해륜 ● 문미향 ● 문선희 ● 문지원 ● 문현주 ● 문희경 ● 박경실 ● 박단추 ● 박미옥 ● 박민영 ● 박봉순 ● 박상용 ● 박선영 ● 박성진
● 박세진 ● 박소훈 ● 박숙현 ● 박영해 ● 박우진 ● 박은울 ● 박은정 ● 박은혜 ● 박은희 ● 박응규 ● 박자현 ● 박종욱 ● 박채연 ● 박태철
● 박현지 ● 박혜진 ● 반장민 ● 방미숙 ● 방종원 ● 배경승 ● 배대한 ● 배미현 ● 배장열 ● 배종윤 ● 백광철 ● 백민지 ● 백복순 루치아
● 백성호 ● 백유진 ● 백지은 ● 변복숙 ● 변영란 ● 서동윤 ● 서예빈 ● 서지애 ● 서형주 신부 ● 소민송 ● 소민준 ● 손경외 ● 손은혜
● 손주희 ● 손진이 ● 송기호 ● 송선애 ● 송세시리아 ● 송수경 ● 송수현 ● 송연주 ● 송유진 ● 송은진 ● 신서진 ● 신주영 ● 신준길
● 신희진 ● 심명자 ● 안도건 ● 안상용 ● 안세정 ● 안시은 ● 양문주 ● 양윤영 ● 양정해 ● 양효빈 ● 엄순옥 ● 엄혜정 ● 여동구 ● 여수진
● 오경미 ● 오선미 ● 오수진 ● 오정민 ● 오혜정 ● 우문철 ● 유 나 ● 유옥선 엘리사벳 ● 유정윤 ● 유현석 ● 유현준 ● 윤경자 ● 윤선아
● 윤선오 ● 윤예리 ● 윤재식 ● 윤정아 ● 윤종근 ● 윤지영 ● 윤혜림 ● 윤혜원 ● 이가현 ● 이강민 ● 이 건 ● 이경민 ● 이경옥 ● 이귀향
● 이기정 ● 이길재 ● 이난엽 ● 이다효주 ● 이동훈 ● 이명남 ● 이미선 ● 이민정 ● 이민음 ● 이병오 ● 이보람 ● 이상옥 ● 이사론
● 이사엘 ● 이선경 ● 이선주 ● 이선화 ● 이성신 ● 이성엽 ● 이소영 ● 이수선 ● 이승철 ● 이영선 ● 이완형 ● 이윤경 ● 이윤별 ● 이은미
● 이은주 ● 이정훈 ● 이종무 ● 이종수 ● 이종칠 ● 이주희 ● 이주희 ● 이준규 ● 이준석 ● 이준재 ● 이지혜 ● 이태구 ● 이한검 ● 이한나
● 이해선 ● 이현민 ● 이혜령 ● 이혜진 ● 이희옥 ● 인지혜 ● 임보네 ● 임새미 ● 임성연 ● 임승진 ● 임예성 ● 임주는 ● 임진형 ● 임춘기
● 임태승 ● 임필립 ● 임희정 ● 장민경 ● 장유정 ● 장혜선 ● 자크린 수녀 ● 전보라 ● 전아라 ● 전용환 ● 전은정 ● 전정인 ● 전채영
● 전태우 ● 정다혜 ● 정다혜 ● 정미연 ● 정서윤 ● 정성우 ● 정승화 ● 정신의 ● 정연소 ● 정예슬 ● 정진희 ● 정채원 ● 정해은 ● 정현수
● 정현정 ● 정혜윤 ● 조경훈 ● 조규윤 ● 조기섭 ● 조다혜 ● 조소망 ● 조수연 ● 조수진 ● 조승희 ● 조원준 ● 조재휘 ● 조준기 ● 조지은
● 조창엽 ● 조하진 ● 조한샘 ● 조해인 ● 조현지 ● 조형열 ● 조화순 ● 주수석 ● 진영원 ● 진지현 ● 찬중세연 ● 채 문 ● 천지연
● 초미경 ● 최 경 ● 최문화 ● 최미경 ● 최미라 ● 최민정 ● 최영은 ● 최영혜 ● 최유나 ● 최유진 ● 최은주 ● 최주리 ● 최준호 ● 최지나
● 최지연 ● 최지은 ● 최진숙 ● 최진숙 카타리나 ● 최진옥 ● 태문선 ● 하경규 ● 하경심 ● 하은옥 ● 한다연 ● 한만희 ● 한승연 ● 한인옥
● 한창희 ● 한해진 ● 한효경 ● 함미성 ● 허슬희 ● 허승희 ● 현나림 ● 현지혜 ● 홍명식 ● 홍민지 ● 홍석만 ● 홍지영 ● 홍지유 ● 황보정
● 황숙연 ● 황현숙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2년 12월~2023년 1월)



● (주)디아이디 ● (주)비올 ● (주)인우아이티 ● (주)티노파이프 일산동구 ● ST ANDREW KIM CATHOL ● 공태현TV ● 대우문화인쇄
● 삼성이튼치과 ● 시흥동성당 빈첸시오회 ● 에이아이의원 ● 에코포스주식회사 ● 역삼동성당 해설단 혼배팀 ● 연세해인내과 ●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비안네 형제회(C\$600) ● (주)일진폴리머 ● 창고
● 최선수학교습소 ● 티락(TEERAK)컨설팅 ● 페이스메이커더블유(주)
● 한옥마을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2년 12월~2023년 1월)



● 강신걸, 김선하 : 빵 1상자 ● 강재호 금성다이아몬드 대표 : 레드향 30kg 3상자 ● 고 박상홍알베르도 : 쌀 80kg ● 김 * 의(파주시) : 쌀(나라미) 20kg ● 김 * 정(구로구) : 식품류 1상자 ● 김승언 : 레드향 20kg 2상자 ● 김치경 : 감귤 2상자 ● 김하 * : 라면 1상자 ● 루시카토 빵집(신세계백화점 영등포) : 케익 11상자 ● 박진경 : 빵 3상자 ● 서상범 군중주교 : 과일 2상자, 꽃감상자 ● 서울가톨릭대 신학생(익명) : 통조림(1), 의류(1), 목도리(1) ● 신민석 회장(대한결핵협회) : 쌀 선물세트 1상자 ● 아이쿱생협연합회 캠페인팀 : 올리고당 간장세트 1상자 ● 양애옥 엘리사벳 : 쌀 20kg ● 양이다 마리아 수녀(안산 빈센트 병원) : 배 1상자 ● 영등포4가 우체국장 : 배(4상자), 사과(3상자) ● 우현철 : 떡 1상자 ● 유 * 현(광주) : 김 1상자 ● 유혜정 라파엘라 : 감귤 1상자 ● 이랜드 복지재단 : 사과 1상자 ● 이원영 대표 : 과일 1상자 ● 익명(청양군) : 쌀 40kg ● 제3글라스(주) : 사과 1상자 ● 토마스의 집 : 떡 1상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 한경희 : 쌀 320kg ● 한국타이어 : 한라봉 1상자 ● 한남동 성당(사회사목분과) : 컵라면 20상자, 햇반 14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2년 12월~2023년 1월)



● 김태우 : 의류 1상자 ● 남 * 현(양주시) : 의류 3상자 ● 박 * 경(부산) : 의류 1상자 ● 박 * 애 : 의류 1상자 ● 박규미 : 겨울점퍼 2점 ● 박찬순(국성회 회장) : 의류 10상자 ● 박현정 : 겨울점퍼 1벌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의류 24상자 ● 오수민 : 의류 2상자 ● 은하수물 : 양말 1상자 ● 이효주 : 의류 2상자 ● 전 * 정(동작구) : 의류 1상자, 신발 1켤레 ● 조 *** : 목도리 1상자 ● (주)메디아스 : 양말 1상자 ● 최 * 경(강동구) : 의류 1상자 ● 최서영 : 의류 1상자 ● 한 * 희(광명시) : 의류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12월~2023년 1월)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5종 ● 제일한방 : 한방파프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12월~2023년 1월)



● 김 * 정(구로구) : 생활잡화 1상자 ● 김 * 희(부산) : 마스크 1상자 ● 김태우 : 어린이 장난감 1상자 ● 당산동성당 : 마스크(300매), 화장지 5상자, 수세미 1상자 ● 배정인 : 이불 13채 ● 서상범 군중주교 : 마스크94 50매 3상자 ● (주)배관랜드 : 마스크94 1000매 ● 한효자 버지니아 : 생필품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 입사자

- 법인사무국
홍석만(2022년 12월 입사, 2023년 1월 2일 사무국장 보임)
- 사회사업실
이태구(2023년 1월 입사, 2023년 1월 2일 1층안내 및 영선 검직 보임)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홍근화(치과)
이민비(정신건강의학)
박정현(치과)
- 약사 : 김미행 양정희(이상 봉사 복귀)
- 방사선사 : 이상구
- 간호사 : 조혜영, 이민주(봉사 복귀)
- 치위생사 : 최윤경
- 환자상담 : 오수경(의료사회복지사)
홍혜미(사회복지 전문상담사)
- 신학생 현장체험
김동빈 리벤시오 · 채명주 바오로
(이상 서울대교구 2월 6일~6월 3일)
최중림 세례자요한
(광주대교구 2월 21일~6월 22일)
- 일반봉사
동국대 약대 봉사동아리(양팡 테리블)
숙명여대 약대 봉사동아리(리코리스)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노숙인(익명)
-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 | |
|-----------|---------|
| 2022년 12월 | 1,207 명 |
| 2023년 1월 | 1,199 명 |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1월 말 현재)

731,869 명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2. 12~2023. 0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슬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개원 10주년 맞아 한국 내·외빈 방문 축하

기념 미사 참석, 사진전 둘러보며 지난날 회고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원 초 봉사와 도움을 주었던 의사, 간호사, 수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김다슬 원장신부,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 김승남 전 서울성모병원장.

개원 1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내·외빈 10여 명이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했다. 요셉나눔재단법인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를 비롯해 재단 산하 요셉의원 신완식 원장과 초창기부터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었던 의사, 간호사와 현지에서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다.

방문객들은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는 한편, 근처 빈민가를 함께 둘러보았다. 특히 불라칸 지역의 빈민가 방문을 통해 마닐라 주변 빈민가의 실상을 살펴보고 고난에 찬 삶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필리핀 요셉의원 역사를 담은 사진전에서는 설립자 최영식 신부와 2대 원장 장경근 신부의 업적을 함께 돌아보며, 요셉의원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개원 10년을 되돌아보는 사진전을 개최해 설립자 최영식 신부와 2대 원장 장경근 신부의 업적과 설립 정신을 되새겼다.

복음 묵상

‘개원 10주년 맞는 ‘필리핀 요셉의원’의 정신 되새기며’

필리핀 요셉의원은 올해 1월 26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장학생들도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립 초기 때부터 힘써주신 내빈들도 방문하셨고, 현지 교

구에서도 총대리 신부님이 축하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현지 의대에서도 교수님과 의사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10주년 기념식은 성대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 10주년을 맞아 필리핀 요셉의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는 정작 이곳에서 1년도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년 간의 기록물과 사진을 접하고 설립자이신 고 최영식 신부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필리핀 요셉의원을 잘 몰랐던 제가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3대 원장을 역임하고 있지만 정작 필리핀 요셉의원의 역사나 설립자 최영식 신부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걱정은 자연스럽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필리핀 요셉의원이라는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필리핀 요셉의원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이는 곧 ‘연속성’에 대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행동을 통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이어지도록

필리핀 요셉의원을 이루고 있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있고, 말라본시(市)라는 위치도 있습니다. 길쭉한 일자 형태의 건물에, 요셉의원



필리핀 현지 갈로칸 교구의 제롬 크루즈 총대리 주교와 본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김다솔 원장 신부가 공동으로 기념 미사를 집전했다. 아래 사진은 설립자 최영식 마티아 신부.



이라고 쓰인 큼지막한 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써 10년째 역사를 함께 하는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원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질은 물

질에 표현되기는 하지만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최영식 신부님의 요셉의원 설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원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건물에서도, 간판에서도, 위치에서보다도 사람의 행동에서,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신과 그것이 배어 있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지난 10년의 역사와 함께 이제 요셉의원은 미래의 10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역사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신이 지난 10년간 이어온 요셉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집을 지어주며, 음식을 제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실천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0년 동안 가난한 이들을 함께 사랑해 주셨던 설립 유공자분들과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운영에 힘써주신 직원분들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요셉의원 역시 우리 역사와 마찬가지로 설립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코로나 이후 첫 성탄 행사 열어

필리핀 요셉의원은 성탄절을 맞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장학생들과 함께 성탄 행사를 치렀다. 미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대 학생들이 저학년 장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활동을 같이 하고, 조별로 게임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활동 후에 여의도성당에서 보내온 성탄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요셉의원이라는 로고를 새긴 티셔츠를 함께 맞춰 입고 '요셉의원' 이름으로 열린 코로나 이후 첫 단체 행사이기도 하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앞으로는 장학생들을 위한 전체 행사를 해마다 두 번 정도 열겠다"고 밝혔다.



개원 10주년 기념미사 장면(위)과 장학생 미사 후 열린 개원 행사에서 장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

새 X선 검사장비 트럭 구입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새 이동식 엑스레이 검사장비 도입 사업이 마무리로 접어들었다. 엑스레이 장비 도입 사업은 '바보의 나눔'을 통한 후원금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 장비는 추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의료봉사뿐 아니라 평소에도 결핵 진료를 비롯해 MCU(Manila Central University)와의 협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새 엑스레이 장비는 장비를 실을 트럭 트레일러의 개조를 거쳐 5월 이전에 인도될 예정이다. +



'바보의 나눔'을 통한 후원금으로 새로 구입한 엑스선 장비를 설치할 트럭(위)과 트럭의 내부 모습.

+ 2022년 12월~2023년 1월 신규 후원회원(15명)

- 김두희 ● 김윤일 ● 김은진 ● 김정현 ● 김종현
- 김현심 ● 김희순 ● 박가원 ● 박태원 ● 송지현 ● 신기호
- 이다솔 ● 이종일 ● 정경화 ● 익명(감사헌금)

+ 2022년 12월~2023년 1월 신규 후원단체

- 아현동성당

+ 2022년 12월~2023년 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796명 ● 급식 7,107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1월 현재)

- 진료 90,158명 ● 급식 460,116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국민은행 | 364301-04-150303 |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 우리은행 | 1005-201-940450 |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2. 12~2023. 0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 동유럽 불가리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있는 강 아브라함 수녀에게서 온 감사 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입니다” 7명의 선교사가 큰 공동체 두 개 이끌며 선교 활동



6년에 걸친 보수공사를 마친 뒤 열린 수녀원 축복식 후 본관 앞에서 현지 교구 주교님과 사제, 수녀, 복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불가리아로 선교를 오기 전에는 동유럽 끝에 있는 나라 ‘불가리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때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와 발음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 외에는...., 훗날 이곳에 오고 난 후에야 그 어원이 ‘불가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낯선 나라, 오랜 공산주의 국가로 낙후된 나라이지만 우리보다 긴 그리스도교 역사가 있으며, 이들의 문화와 삶의 뿌리에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깊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 수도회도 이곳에서 포교를 시작한 지 110년이 됩니다. 한국 진출보다 10년이 앞섭니다. 하지만 개인사도 그러하듯 국가나 종교의 역사에도 흥망성쇠, 영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때 90%를 웃돌던 정교회도, 활발한 선교활동을 하던 가톨릭교회도 지금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불가리아 수녀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파견된 선교사 7명으로 구성돼 있

으며, 두 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선교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많은 이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우리들의 선교 사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현재 하고 있는 작은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일은 6년에 걸친 수녀원 보수공사를 마치고 9월 17일에 주교, 사제, 수도자, 건축 책임자 및 많은 지인을 모시고 감사미사와 수녀원 축복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두 차례에 걸쳐 가질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았던 공동체를 교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월 20일에 다시 열게 된 일입니다.

하지만 7명의 선교사로 두 개의 큰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전입니다. 본당 사도직 외에도 우리는 불가리아에서 ‘기적의 연고’라 불리는 마리골드 연고를 생산하여 온갖 피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 캠프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편찮으신 분, 가난한 이웃들을 방문하여 식품을 전달하고, 교우들에게는 신부님 대신

봉성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들이 이런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도움을 주신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회원님들께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한해에도 하느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늘 건강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수녀원 축복 행사 날 점심 식사 후 불가리아 전통 춤을 추는 참석자들.
사진 오른쪽은 축복 미사 전 불가리아 전통 악기 연주 모습.

☞ 강 아브라함 수녀에 대한 지원 : 지난 2021년 11월 18일 불가리아의 가난한 볼리비아 이민자 가족의 집수리와 병원비로 200만 원을 후원.
(※ 후원금 200만 원은 이문주 신부님의 지정기탁금입니다).



➔ 올해로 가톨릭 선교 30주년을 맞은 몽골 교회 이호열 신부에게서 온 감사 편지

“쓰레기장에서 구한 성모님께 지구 구원을 기도합니다” 버려졌던 목각 ‘에코(Eco) 성모님’ 주교관에 모셔

2022년 마지막 달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에 따라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몽골 가톨릭 선교 30주년을 맞아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주교님, 한국과 몽골 겸임을 하고 계시는 교황대사님, 그리고 로마에서 몽골 교황 방문을 위해 협의하러 오신 대주교님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6년 다르항 시 외곽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된 목각 성모상을 주교좌 성당에 모시는 안치식을 가졌습니다.

사진에 있는 성모상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되었고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다르항 시에서는 살레시오회와 마더 데레사의 사랑의 선교회 수녀회가 사목 중입니다. 수녀님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영성에 따라 가난한 집을 방문하거나 식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장에서 작업하는 이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던 중 체첸계라는 67세 되는 부인이 쓰레기를 줍다가 발견한 성모상을 자기 집에만 모셔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녀는 이 사실을 본당에 알렸고 본당 신부는 그 성모상을 인수받아 다르항 성당 제의방에 6년 간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일 지오르조 마렌고 현 주교님(콘



슬라타회, 아르와웨 지역에서 본당 사목. 2022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최연소 추기경으로 임명)의 다르항 사목 방문 때 쓰레기장에서 성모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주교님에게도 알려져 그 쓰레기장을 방문하게 됐고, 수녀님들과 함께 체첸계 부인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그후 3월 25일에는 본당 신부와 다르항 수녀님 그리고 체첸계 부인이 동행해 성모상을 주교관에 모셨습니다.

올해는 몽골 가톨릭 선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성모님은 30년 전 몽골 가톨릭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몽골에 계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자인 외국인이 모시고 있다 본국으로 가면서 현지인에게 주었고, 현지인은 이사를 가면서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쓰레기장에 버린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쓰레기장의 성모님을 Eco 성모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에 따른 쓰레기로 신음하는 지구의 생명체처럼,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돼 구해진 성모님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위태로울 때 발현하시는 성모님은 사랑 가득한 애덕으로 늘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어찌면 지구의 환경 위기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마음에 성모



님이 쓰레기장에서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 성모님, 목각 성모상을 바라보며 지구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늘려가는 여성성의 대표자입니다. 몽골 교회는 규모는 아주 작지만, 이 작은 몽골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여성성을 지키고 키워나가 몽골의 자연 훼손을 막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 이호열 신부에 대한 지원 : 2019년 3월 14일에 성경필사 운동을 위한 노트제본용 종이와 펜, 성경필사 운동 활동비, 인쇄기 및 주변기기, 탈무드 번역 인쇄비용으로 약 1,290만 원을 후원.

+ 2022년 국성회 수지보고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원

| 수 | 입 | 지 | 출 |
|--------------------|-------------|-----------|-------------|
| 계정과목 | 금 액 | 계정과목 | 금 액 |
| 후원금 | 86,628,000 | 국내외 성경후원비 | 32,359,500 |
| 이자수입 | 4,899,050 | 인건비 | 10,200,000 |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정기탁금 | 100,000,000 | 우편요금 | 253,100 |
| 이자법인세 환급비 | 861,240 | 성탄카드 인쇄비 | 495,000 |
| | | 소모품비 | 171,100 |
| | | 전화요금 | 144,520 |
| | | 지료수수료 | 4,800 |
| | | 이자소득세 | 752,620 |
| | | 전기세 | 137,940 |
| | | 차기이월금 | 147,869,710 |
| 합 계 | 192,388,290 | 합 계 | 192,388,290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2년 12월~2023년 1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희 ● 김민정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애
● 김진우 ● 김춘희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남태연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은숙 ● 박종대 ● 박찬순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유성훈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엽재 ● 이용애 ● 이은행 ● 이일숙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환 ● 이지현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임한미 ● 장을숙 ● 전대영 ● 정재숙 ● 조용덕 ● 조하영 ● 조현순 ● 주희숙
● 진석실업 ● 최권욱 ● 최두혁 ● 최명옥 ● 최문승 ● 최송원 ● 최원남 ● 최종숙 ● 하금태 ● 허 근 ● 홍성실 ● 황세희 ● 황태운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2년 12월~2023년 1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박준병 ● 백성호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요안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양양성글라리아수녀원 ●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2년 12월~2023년 1월)

● 김명자 ● 김승원 ● 안정순 ● 임정식

■ 2022년 12월~2023년 1월 후원금 내역 : 21,299,000 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우리은행 | 1005-801-003937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 국민은행 | 364301-04-106412 |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2023년 3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 마태 11, 28-29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해주는 사람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기업은행 | 209-000118-01-010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 우리은행 | 172-066521-01-101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 국민은행 | 364-01-0000-976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 111-13-04699-8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 하나은행 | 193-890037-13505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 우체국 | 010108-01-011536 |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상영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